
		<b>보 도 자 료</b>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1년 9월 30일(목) 총 3매	 환경특별시 인천
담당 부서	정보화담당관	담당자	• 정보기획평가팀장 한명숙 ☎440-2311 • 담당자 임학수 ☎440-2313	
사진	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## 인천시, 「위성영상 활용 폭염취약 우선관리지역 도출」 연구 ‘우수성’ 인정... 장관상 수상

- ‘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’ 2년 연속 ‘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’ -  
- 기상재난에 신속한 대책마련 가능토록 한 것이 높은 평가 받아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‘제38회 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’에서 지난 해 이어 2년 연속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.

지역정보화 연구과제 발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의 우수한 지역정보화 추진과제 발굴 및 공유를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다. ‘21년 8월 전국 각 시·도에서 제출한 15개 과제 중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 과제의 현장발표와 온라인 투표,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 등을 거쳐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.

인천시는 최근 10년간 폭염과 열대야 발생일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인명피해와 직·간접적으로 건강, 농·축·수산업, 에너지, 교통 등 사회·경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끼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

고 시민들의 안전 및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왔다.

그 일환으로 올 상반기에는 그간 축적된 각종 빅데이터 분석기반을 토대로 ‘위성영상을 활용한 폭염취약 우선관리지역 도출’ 연구를 진행했고, 폭염 영향에 취약한 계층을 고려한 폭염대응 우선관리지역을 도출했다.

\* 취약계층 : 동일한 환경유해인자에 회피능력,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건강 영향이 우려되는 계층(고령자, 영유아, 독거노인 등)

인천시는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▲무더위 사각지대 및 쉼터 장소 발굴 및 운영 ▲폭염저감시설 설치 운영과 버스정류장 쉼터, 차광막, 그늘막 설치, 옥상 녹화사업에 적극 활용했으며, 더불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예방물품을 지원하는 등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정된 인프라 내에서 단기간 추진할 수 있는 기상재난에 신속한 대책마련을 가능토록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.

여중협 기획조정실장은 “이번 수상은 인천시가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 뜻깊은 일이라며,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시정 현장 곳곳에 새로운 지능정보 기술을 적용해 다양한 혜택이 녹아들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행정과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붙임> 참고자료

## 참 고 자 료

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역을 도출

